

하루를 시작하며



권희진
디어마이블루 서점 대표

며칠 전 서점에서 있었던 일이다. 문답을 때가 다 되어 온 한 커플이 안에 들어오진 않고 밖에서 계속 사진을 찍었다. 한참 후 안으로 들어오길래 인사를 건넸지만 대답도 하지 않고 또 사진만 찍었다. 그러다 진열된 책을 떨어뜨려 찌그러졌지만 사과한 마디 안 하고 그냥 나갔다. 처음 내가 서점을 오픈할 때만 해도 꽤 흔한 일이었지만 이후 이런 손님들에 대한 동네서점들의 고충이 많이 회자되어서인지 한동안 뜸했는데 아주 오랜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서점에 올 때도 예의가 필요하다

사실 동네서점에 와서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진만 찍고 갈 수도 있다. 막상 서점이라고 들어왔는데 진열된 책들이 내 취향이 아닐 수도 있고, 열심히 둘러봤지만 꼭 사고 싶은 책이 없을 수도 있다. 우리는 특히 200종만 파는 서점이라 선택지가 더 좁은 편이니 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일단 서점에 들어왔으니 무조건 꼭 책을 사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바는 그래도 우리 기본적으로 서점이니,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우리 서점에 있는 책들이니까, 그 책들을 들춰보는 적이 라도 해주면 안 되겠냐는 것이다. 많은 제주 동네서점 주인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텐데, 책을 안 사더라도 어떤 책이 있는지 둘러보고 구경하고 한 권쯤 들춰서 내용을 살펴보기도

하고 책에 대해 질문하기도 하는 그런 정도의 성의와 관심이 사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 서점에 와서 책 구경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이 제주에서 서점을 하다 보니 그 자체로 '고마운' 일이 되어버렸다. 다른 지역의 동네서점들은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서 비교가 불가하겠지만, 적어도 제주의 동네서점들은 소위 '사진 찍기 좋은 핫플'과 먹고살기 위해 책을 팔아야 하는 상점과 허울뿐인 복합문화공간 혹은 마을 사랑방 사이의 그 어느 경계에서 늘 싸우고 있는 느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몇몇의 서점들이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점에서 책을 산 사람만 사진을 찍게 한다거나 사진 촬영을 아예 못 하게 하는 규제를 두고 싶은 마음까지는 없다. 그래도 제주도까지 와서 일부러 서점을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선한 호기심과 양심을 아직 믿고 있고, 몇몇의 몰상식함과 몰염치 때문에 정말 좋은 마음으로 동네서점을 찾는 분들에게 미리 장벽을 치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다. 물론 더 제수스럽고 더 감성적인 느낌이 가득한 서점들은 우리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시달릴 테니 각자의 상황에 맞게 나름의 규칙을 정하는 것 역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니 제주의 동네서점들을 방문할 때는 각자의 공간들이 정한 규칙을 먼저 잘 살펴봐주시면 좋겠다. 사진 찍는 것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더라도 사진 찍기 전에 "혹시 사진 찍어도 되나요?" 물어보고, 들어오고 나갈 때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가)세요" 인사를 나누고, 설명 책을 한 권도 사지 않았더라도 진심을 담아 "잘 봤습니다"라고 말하는 정도의 예의와 배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사설

불안한 신종 코로나, 접촉자 철저 관리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주를 여행하고 돌아간 50대 중국인 여성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증폭된 것입니다. 급기야 중국인 여성과 밀접하게 접촉한 제주도민이 11명으로 늘어나 격리 조치됐습니다. 문제는 잠복기가 끝나는 오는 6일까지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어서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여행을 마치고 귀국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 우한 출신 유모(52)씨와 접촉한 도민 11명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유씨는 지난달 21일 제주에 들어와 관광하고 25일 제주공항을 통해 양저우로 떠났습니다. 귀국한 유씨는 다음날(26일) 발열 증상을 보이기 시작, 30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유씨가 발열증상을 보이기 이틀 전인 1월 24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상 신종

코로나 증상을 보이기 2-3일 전부터 전염 위험성이 대두되는데 이날 유씨가 돌아다니 지역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유씨와 접촉한 약사와 편의점 점원, 버스기사, 옷가게 점원, 카페 점원 등 2명, 호텔 직원 5명 등 11명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또 옷가게와 편의점 점주, 버스기사 등 3명은 능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해 1대1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를 다녀간 중국인 관광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잠복기에도 전염될 수 있다는 사례가 나오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불안감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제주에서 함께 여행한 딸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다음날(26일) 발열 증상을 보이기 시작, 30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유씨가 발열증상을 보이기 이틀 전인 1월 24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상 신종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강력 단속 나서라

제주도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가짜뉴스마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국가적 비상사태에 감염 확산방지와 예방에 총력을 쏟아도 힘든 판에 가짜뉴스의 범람은 불안심리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도내서 제주지역 한 종합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환자가 이송됐다는 뉴스가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확산됐습니다. 앞서 지난 설 연휴에도 도내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도내 지역 한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했다는 유언비어가 퍼진 적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와 관련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부정확한 정보와 괴담 등은 우려할만한 수준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전파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임 환자 여부,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 문미숙기자

면서 도민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까지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의 범람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정보감염증' 즉 인포데믹(infodemic)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날 정도입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퍼지듯 '정보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전염병 퇴치를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포데믹은 정보(information)와 감염병 확산(epidemic)을 합친 신조어입니다. 지금과 같은 비상사태에 가짜뉴스 등은 지나친 공포심을 조장하고,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오히려 감염증 자체보다도 사람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큼니다. 방역과 퇴치에 신경써야 할 때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전파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임 환자 여부,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 문미숙기자

열린마당

'노망'



손계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어렸을 적, 할머니집에 가면 할머니가 또 다른 나이 많은 할머니를 모시고 있었다. 할머니께서 이 분을 보고 '노망'하는 할머니라고 했었다. 얼마 되지 않아 이 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 치매였다. 그 당시에는 치매환자가 많지 않았다. 아마도 수명이 지금보다 짧아서 그랬을 것이다.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에 치매로 인한 증상 중에 이상 행동을 하면 고의로 하는 것처럼 여겨져 '노망'한다고 했던 것이다. 아마 치매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미국 대통령을 지낸 레이건이 치매환자라고 고백하면서부터 아닌 가 싶다. 그 어떤 질환보다 치매가 제일 힘들고 문제가 많은 것 같다. 많은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을 만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자신을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자신도 모르고 배우자도 모르고 자식도 알아보지 못한다. 이 뿐만 아니다. 치매 환자들은 치매 증상으로 인해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도저히 같이 지낼 수가 없어 병원이나 시설 등에 모실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사회 변화로 핵가족화 되면서 아예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젊은 층에서도 치매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치매를 국가에서 돌보겠다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언한 것은 다행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치매환자에 대해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치매 수급자를 확대하고 치매 진단기관 확충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치매 없는 세상이 빨리 오길 기대한다.

뉴스-in

제주도교육청, 출석 인정 대상자 확대

중국 전역 방문자로 변경
기재부 등 6개 부처를 방문해 사업 설명을 가질 계획.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이 열악할 것에 대비해 올해 확보한 4964교를 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해 4월부터 시행. 제주도교육청은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지인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방문 학생과 교직원에게 한해 등교를 하지 않도록 했지만 그 대상을 중국 전역 방문자로 변경.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는 방학 중이지만 돌봄교실, 방과후교실이 운영되고 있어 이같이 지침을 변경했다"고 설명. 김지은기자

제주시 국비신규사업 절충
○...제주시가 이달부터 중앙부처를 방문해 2021년도 국비신규사업 절충을 진행하기로 해 주목. 올해 1차 절충 목표대상 신규사업은 ICT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집운반체계 구축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우선 6-7월까지 이틀간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송윤규(前 제주은행지점장, 건입동 주민자치위원장) 어머니 청주한씨 정순(향년 93세)께서 서거 2020년 2월 3일 16시 18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2월 5일(수요일)
발인일시: 2020년 2월 6일(목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오동동선영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제주양씨 정자(향년 86세)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2월 5일
남 권 이 덕 성
아 들 이 기 연
며느리 김 옥 경
양 영 미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술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콤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릿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693-2000, 010-2696-987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하리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